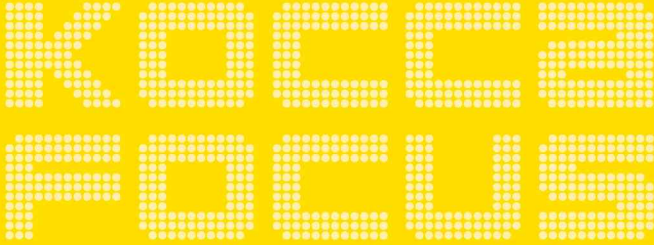


국내 전문직 드라마, 어디까지 진화했는가?

2010. 9.

1. 문제제기: 전문직 드라마 장르 연구의 필요성
2. 전문직 드라마의 개념 정의
3. 국내 전문직 드라마의 방송 현황
4.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5. 분석결과: 국내 전문직 드라마의 장르적 특성
6. 결론과 연구의 한계



작성 : 산업정책실 정책연구팀 이원 책임연구원(02-3153-3012) wonkr@kocca.or.kr

요 약

□ 국내 전문직 드라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 2007년부터 국내에서도 전문직 드라마라고 부를 수 있는 일련의 드라마들이 대거 방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부재함
 - 전문직 드라마의 등장은 한류 열풍 이후 드라마의 산업화와 함께 국내 드라마가 경험하고 있는 큰 변화 중 하나이며 사극과 멜로드라마 트렌드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장르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현상임
 - 국내 전문직 드라마에 관한 연구는 자본 중심의 논리에서 벗어나 일반 상층과는 다른 창의적 문화상품으로써 드라마를 이해하고 국내 드라마의 현주소와 진화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임

□ 전문직 드라마의 정의

- 전문직 드라마는 기존의 전통적인 멜로 장르를 탈피해서 전문직 종사자의 생활, 성공, 좌절, 행복 등을 극적으로 재구성한 드라마
 - 현대사회 전반에서 전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문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직이 흥미로운 드라마 소재로 부상
 - 전문직 드라마는 대상 직업에 대한 매우 사실적이고 세부적인 묘사와 개성이 강한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임

□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연구문제
 - 200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전문직 드라마는 하나의 독립적 장르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특성과 경향을 보이고 있는가?

- 연구방법
 - 2000~2010.08까지 전문직 드라마의 전수조사
 - 시청자, PD, 전문가 심층인터뷰
 - 시청층, 소재, 서사구조, 캐릭터로 범주화하여 주요 장르적 특성 분석
- 분석결과: 국내 전문직 드라마의 장르적 특성
- 시청률과 시청층의 제한성
 - 전문직 드라마는 매니아 시청층의 출현을 가져올 만큼 특정 시청층에게는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극이나 멜로 드라마처럼 보다 폭넓은 시청층을 확보하지 못함
- 전문직 소재의 현실효과와 다양화
 - 기존에는 전문직을 전통적인 멜로 드라마에 신선함을 가미하는 차원에 머물렀으나 2000년대 후반에 와서는 전문직에 대해 매우 사실적이고 세밀한 묘사를 추구함
 - 관례적으로 소재거리가 되었던 의학, 법정, 수사를 넘어 요리, 방송, 스포츠, 패션 등 전문직 소재가 매우 다양해짐
- 서사구조: 멜로와 전문직 사이에서
 - 2000년대 초중반에는 멜로 중심에 전문직 색채를 가미한 드라마가 대부분이었으나 후반에 와서는 직업생활의 삶과 갈등이 서사구조를 이끌어가는 본격적인 전문직 드라마가 다수 방송됨
 - 2009년부터는 직업 중심의 서사구조를 가진 전문직 드라마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드라마 제작이 멜로로 회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전문직 슈퍼맨' 캐릭터의 등장
 - 기존에 픽션에서 대중을 위한 모델로 다양한 슈퍼(super)+맨(man) 캐릭터가 제작되어 왔는데 전문직 드라마에서는 '전문직 슈퍼맨' 캐릭터로 파생됨
 - 전문직 드라마의 슈퍼맨은 좌절과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항상 일어서는 노력형이며, 항상 선천적인 특별한 재능을 지니고 있으며, 정의와 같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함
 - 전문직 드라마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기존에 성공한 드라마의 전형적인 요소들을 모방하거나 혼합한 캐릭터의 특성을 보이기도 함
 - 전문직 슈퍼맨 캐릭터는 기존의 초능력을 지닌 슈퍼히어로 캐릭터와 유사하게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이중성은 이야기의 긴장감이나 극적 반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시청자에게 동일시를 통해 대리만족을 주는 기재로 활용됨
- 결론
- 오랫동안 사극과 멜로 중심의 드라마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사회문화적 환경과 수용자의 시청경험의 변화에 따라 드라마도 진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서사구조의 변화, 소재의 다양성, 캐릭터의 창조를 근거로 최근 국내 전문직 드라마 장르의 도약은 매우 의미있고 긍정적인 현상임
- 2009년부터 직업 중심의 전문직 드라마가 확연히 줄고 있으며 다시 멜로로 회귀하거나 기존의 성공한 콘텐츠의 요소들과 타협을 시도하고 있어 국내 전문직 드라마의 본격적인 장르 형성과 성장이 불투명함



I. 문제제기 : 전문직 드라마 장르 연구의 필요성

□ 드라마 제작의 산업화와 문제점

- 한류가 드라마 산업에 새로운 비전과 함께 본격적인 산업화를 촉발시켰다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발생
 - 드라마를 새로운 엘도라도로 보고 모여든 방송사와 제작사 그리고 투자자는 과도한 편성, 경쟁 심화, 제작비 상승 등으로 인해 오히려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기형적' 제작비 상승은 드라마의 수익성 악화의 주원인인데 스타급 배우, 작가, 연출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제작요소의 가격이 급상승
- 드라마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간주되어온 높은 제작비, 스타급 연기자와 작가, 등을 투입해도 드라마의 성공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님!)
 - 지상파 3사가 동시간에 과도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좋은 작품도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음²⁾
 - 시청률이 높아 광고수익과 OSMU를 통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투자비가 과도하면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음

1) 사실 드라마의 성공 이유에는 각각의 작품마다 편성시간, 경쟁상황, 스타시스템, 연기자와 연기력, 서사구조, 사회문화적 트렌드 등 연구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수많은 요인들이 존재함

2) 윤석진(2009)은 2007년 화제작 <이산>과 <태왕사신기>에 맞붙어 각각 4.2%와 7.7%의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던 <얼렁뚱땅 흥신소>와 <인순이는 예쁘다>, 그리고 2008년 <에덴의 동쪽>과 경쟁하여 6.3%의 시청률을 기록한 <그들이 사는 세상>을 작품성이 높은 드라마로 평가함(권호영 외, 2009, 207쪽). 물론 작품성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에 따라 매우 주관적일 수 있음.



- 드라마는 킬러 콘텐츠이므로 점점 더 많이 편성되고 소비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드라마 혹은 다른 채널의 드라마와는 차별화되는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 '대박 드라마'의 제작요소들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의 공통분모일 뿐이며 상상력의 결과물인 창작과 예술의 영역에서 '공식'은 존재하지 않음(권호영 외, 2009, 185쪽)

□ 드라마 장르의 진화와 전문직 드라마의 등장

- 드라마가 일반 상품과는 달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재미, 감동, 의미 등을 교환하는 문화상품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 수용자의 시청경험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드라마도 새로운 장르로 진화하지 않을 수 없음(주창운, 2004)
- 2007년부터 전문직 드라마라고 부를 수 있는 일련의 드라마들이 대거 등장
 - 전문직 드라마란 전문직종에 관한 드라마로 한국 드라마의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르는 아니지만 의학, 수사 등 몇몇 소재에 매우 국한되어 있었음
 - 전문직 드라마는 2007년부터 편성 횟수, 시청률, 소재의 다양성 면에서 간파할 수 없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전문직 드라마의 등장은 국내 드라마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등장한 매우 의미있는 현상으로 보임
 - 국내 전문직 드라마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과연 하나의 장르로 정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국내 드라마 제작의 현 주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 이 연구는 더 나아가 드라마를 일반 상품과는 다른 창의적 문화상품으로 이해하고 국내 드라마의 진화경로를 이해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가짐

II. 전문직 드라마의 개념 정의

- 전문직 드라마의 개념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멜로 드라마들이 사랑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전문직을 그럴 듯한 배경으로 활용하는 경향으로 봐야 함(신주진, 2009, 424쪽).
- 전문직 드라마라고 부르기 보다는 새로운 장르를 실험하는 '장르 드라마'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함
- 장르 드라마가 필요한 이유는 다변화된 매체 환경과 시청자층의 분화 현상에 따라 드라마에 다양성이 더욱 요구되며 너무 우려먹은 멜로 드라마를 살려내기 위해 장르 실험이나 혼용이 필요하기 때문
- 전문직 드라마는 "전문직업 속에서 드러나는 직업특성, 일의 본질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문직종의 사람들의 삶과 생활, 그리고 그들이 겪는 좌절과 행복" 등이 주를 이루는 드라마(김안나, 2007, 73쪽)
- 전문직 드라마를 표방하는 많은 드라마들 중에 멜로 코드보다 전문직에 중심을 둔 드라마가 많지 않음이 지적됨
- 전문직 드라마의 주요 특징으로는 전문직에 대한 매우 사실적인 묘사와 다양한 캐릭터의 등장으로 볼 수 있음
- 젊은이들의 기호와 세태를 담은 연애 드라마를 트렌디 드라마로 볼 수 있으며 이 드라마가 15년 동안 한국 미니시리즈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전문직 드라마가 등장함(조민준, 2008)



- 인터넷과 케이블 TV의 발전과 함께 미드와 일드가 국내에 빠르게 전파된 상황이 전문직 드라마의 발전과 관련이 있음
- 전문직 드라마는 '전문직' 종사자를 통해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전문직의 세계를 극적으로 구성한 드라마(윤석진, 2007)
- 전문직의 세계를 다룬 드라마에는 일반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극적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
- 그 이유는 전문적인 지식을 무기로 특화되어 있는 전문직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인 경우가 많고, 전문직 드라마는 바로 이 같은 대중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때문

III. 국내 전문직 드라마의 방송 현황

- 2007년부터 전문직 드라마에 있어서 양적 질적으로 기존의 드라마 트렌드와 확연히 구분되는 현상이 나타남
- 전문직 드라마가 국내 방송에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며, 과거 오랜 인기를 누렸던 <수사반장>도 전문직 드라마의 일종임
- 의료계나 법조계처럼 한국사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인이 등장하는 드라마도 과거 드라마에서 쉽게 발견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은 전환기가 되는 해로 각 방송사가 본격적으로 전문직 드라마를 대거 방송하기 시작함



<2000년대 국내 전문직 드라마 방송 현황>

| 구분 | KBS1/2 | | | MBC | | | SBS | | |
|------|--|--------------|------------------------|---|---|-------------------------------|-----------------|---|--------------|
| | 월화 | 수목 | 주말 | 월화 | 수목 | 주말 | 월화 | 수목 | 금/주말 |
| 2000 | | | | | <이브의 모든 것> (아나운서) | | | | <메디컬센터> (의학) |
| 2001 | | | | | <호탈리아> (호탈리아) | | | | |
| 2002 | | | | | <리영반> (경사) | | | | <라이벌> (골프) |
| 2003 | | <보디가드> (경호원) | | | | | | <패라> (복싱) | |
| 2004 | | | | | | | | | <죽자> (마술) |
| 2005 | | | | <변호사들> (법정), <울창한 스키야> (교통순경, 경찰) | <내이름은 김상순> (파타케) | | <조선70s> (조선) | | <온리유> (요리) |
| 2006 | | | | | <오버더 레인보우> (대중음악계, 가수) | <단골 진표 동아메이청 외대 요리사, 청와대 경호원> | | <불량가족> (가족대행서, 바스업채) | |
| 2007 | | <일단뛰어> (경찰) | | <리트> (수사), <미광> (수사), <카피프린스 (최환)> (비리사드) | <뉴하트> (홍부외과), <개와늑대의 시간> (의학), <국가정보원 요원> | <하얀거탑> (의학), <에이스턴> (항공) | | <외과의사 봉달희> (외과), <편의 전쟁> (대부분), <로비스트> (로비스트) | |
| 2008 | <그들이 사는 세상> (방송국 드라마 제작국), <강적들> (청와대 경호원) | | <망이면 밤마다> (문화재청, 고고학자) | <메토벤 바이러스> (클래식), <종합병원2> (의학), <포트라이프> (방송, 연예계), <내여자> (보도국 기자), <대한민국 변호사> (변호사) | <내여자> (조선업) | <사랑이여라>, <대우야> (연인) | <온헤어> (방송, 연예계) | <신의자물> (법정) | |



<2000년대 전문직 드라마 방송 현황>

| 구분 | KBS1/2 | | | MBC | | | SBS | | |
|------|-------------------------|---------------------------------|-------------------|----------------------|--|----|--------------|----------------------------|--------------|
| | 월화 | 수목 | 주말 | 월화 | 수목 | 주말 | 월화 | 수목 | 금/주말 |
| 2009 | <결혼 못하는 남자> (건축) | <피트나> (법정) | <열혈장사꾼> (자동차 세일즈) | | <신데렐라맨> (의류업), <토끼들이> (피겨스케이팅) | | <드림> (이종격투기) | <카인클리어> (의학) | <스딩달> (조선잡지) |
| 2010 | <국기가 부른다> (9급순경, 경보국요원) | <신과열라 연나> (영조업), <재향장학대학> (재향업) | | <마스타> (요리-파스타) 21.5% | <개인의 취향> (가구 디자이너, 건축설계사), <만남, 구> (마라톤) | | | <상부인교> (의학), <김사프린체스> (법정) | |

- 방송사 별로 보면 전문직 드라마 편성에서 MBC가 가장 활발함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2009년부터 급격하게 무관심으로 돌아감
- SBS는 지속적으로 적절한 비율로 전문직 드라마를 편성하고 있으며 KBS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
- 2000~2006년 기간에도 전문직 드라마가 MBC와 SBS에 매년 드물게나마 방송되었으나 양적 질적으로 2007년 이후와는 구분됨

<방송사별 전문직 드라마의 편성 비중(2007~2010.08)>

| 구분 | KBS1/2 | | MBC | | SBS | | 총계 |
|------|--------|----------|-----|-----------|-----|-----------|------------|
| | 전체 | 전문직(비율) | 전체 | 전문직(비율) | 전체 | 전문직(비율) | |
| 2007 | 15 | 1(6.7%) | 14 | 7(50.0%) | 14 | 3(21.4%) | 11/43(25%) |
| 2008 | 15 | 2(13.3%) | 16 | 6(37.5%) | 14 | 4(28.6%) | 12/45(26%) |
| 2009 | 17 | 3(17.6%) | 17 | 2(11.8%) | 15 | 3(20.0%) | 8/49(16%) |
| 2010 | 12 | 3(25.0%) | 8 | 3(37.5%) | 8 | 2(25.0%) | 8/28(28%) |
| 총계 | 59 | 9(15.3%) | 55 | 18(32.7%) | 51 | 12(23.5%) | |

- 전문직 드라마는 밤 10시 시간대에 주로 편성되며 수목 미니시리즈로 가장 많이 편성되었음

<편성요일에 따른 전문직 드라마 수(2000.1~2008.9)>

| 구분 | KBS1/2 | MBC | SBS | 전체 |
|------------|--------|----------|---------|-----------|
| 일일극 | 0 | 0 | 0 | 0 |
| 주간극(월화/수목) | 8(4/4) | 22(7/15) | 13(4/9) | 43(15/28) |
| 주말극 | 2 | 4 | 6 | 12 |
| 총계 | 10 | 26 | 19 | 55 |

IV.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연구문제

- 기본가설
 - TV 드라마 장르는 성공과 유행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나 긴 시간적 흐름 속에서 보면 생성, 반복, 소멸의 과정을 거침
 - 최근 TV 드라마는 제작환경의 변화,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채널 간 경쟁심화, 수용자의 시청경험이 다양화로 인해 기존의 이론적 혹은 전통적인 장르 분류체계로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새로운 드라마 장르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전문직 드라마임
- 연구문제
 - 200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전문직 드라마는 하나의 독립적 장르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특성과 경향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전문직 소재를 가미한 기존 장르의 피상적인 변신일 뿐인가?

10



□ 연구방법

-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지상파 방송 3사에서 방송된 전문직 드라마의 전수조사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
- 총 수십 편에 달하는 전문직 드라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에 따라 드라마 PD, 시청자, 전문가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분석은 국내 전문직 드라마 장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범주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판단되는 시청층, 소재, 서사구조, 캐릭터로 분류하였음

V. 분석결과: 국내 전문직 드라마의 장르적 특성

1. 시청률과 시청층의 제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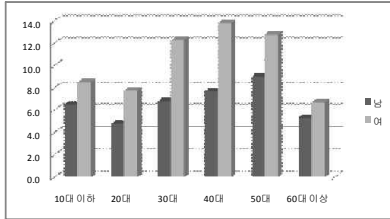
- 드라마의 시청률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한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물
 - 많은 자본과 인력으로 작품성을 인정받는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방송의 속성상 경쟁 드라마의 편성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권호영 외, 2009)
 - 시청률은 개별 드라마의 성적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특정한 장르의 특성을 추출해 내는 것은 쉽지 않거나 매우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조사를 통해 전문직 드라마의 특성을 추출해 본 결과, 멜로 중심이 아니면서 시청률 면에서 나름 성공을 거둔 전문직 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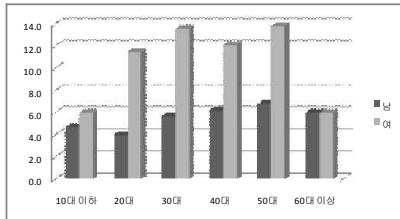
라마에서는 30~40대 여성이 주시청층으로 나타남

- 전문직 드라마는 수목에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월화에 많이 편성되는 포맷상 주로 미니시리즈임
- 전통적으로 드라마의 시청층은 40대와 50대 여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을 30대 여성이 있고 있는데 2005년부터는 40대 여성이 50대 여성의 시청률을 앞지르고 있음
- 직업 중심의 성공적인 드라마는 <베토벤 바이러스>, <식객>, <스타일>이 있고 직업과 멜로를 혼합하여 성공한 드라마는 <은애어>, <파스타>가 있는데 모두 30, 40, 50대 여성이 시청률을 떠받치는 주요 시청층을 형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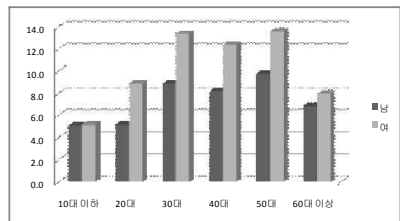
<베토벤바이러스> 연령별 시청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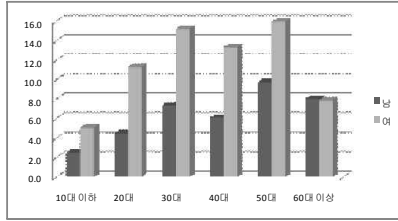
<파스타> 연령별 시청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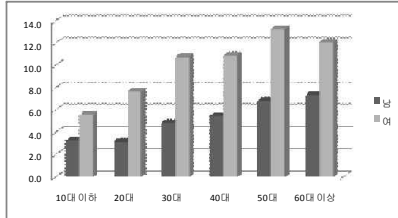
<식객> 연령별 시청률



<은애어> 연령별 시청률



<스타일> 연령별 시청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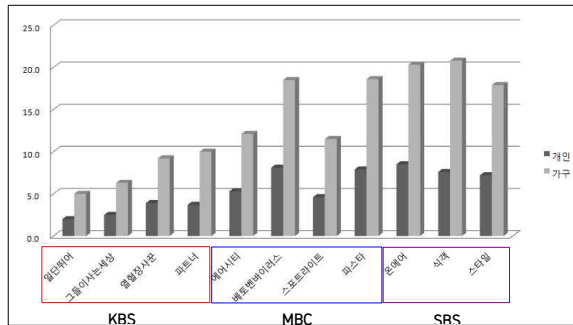
- 전문직 드라마는 매니아층을 등장시킬 만큼 특정 시청층에게는 강력한 매력을 발산하지만 사극, 가족 드라마, 멜로 드라마처럼 보다 폭넓은 시청층을 확보하지는 못함
- KBS의 경우 전문직 드라마의 편성이 제일 적기도 하지만 시청률 성과도 가장 저조함
- MBC의 경우를 보면 지상파 3사 중 전문직 드라마를 가장 많이 편성했는데 <하얀거탑>, <메토벤 바이러스>, <파스타>가 나름 성공적이긴 하나 평균



시청률이 20%대를 넘기지 못함

- 전문직 드라마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채널은 SBS로 월화(<식객>), 수목(<은애어>), 주말(<스타일>)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둠
- 2007년부터 대거 편성되기 시작한 전문직 드라마에서 평균 시청률 30%를 넘는 작품이 없으며 전반적으로 전문직 드라마의 시청률 실적이 저조함

주요 전문직 드라마의 가구 및 개인별 시청률



- 시청률 관점에서 최근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은 2010년 6월 9일에 첫 방송을 시작하여 9월 초 약 45%의 시청률을 기록한 KBS의 전문직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두드러진 강세임
- 이 드라마를 전문직 드라마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는 제빵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묘사가 작품에 잘 드러나기 때문
- 하지만 이 작품을 전문직 드라마로만 보기 어려운 것은 전문직 드라마 요소 뿐만 아니라, 4각 관계의 멜로물, 불륜극, 복수극, 시대극 등 어떻게 보면 기



존의 다양한 장르에서 매우 진부하지만 성공요인으로 간주되는 요소들이 모두 결합된 드라마이기 때문

- 기본적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주인공(김탁구)이 다시 찾은 아버지 회사의 대표직을 맡아 경영을 하는 장면은 매우 황당한데, 전문직업의 세계에서 과도한 비현실성은 전문직 드라마로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다는 증거임

2. 전문직 소재의 현실효과와 다양화

- 2007년 이후 발전한 전문직 드라마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소재로 삼는 전문직이 세부화되고 다양해졌다는 점에 있음
- 기존에 전문직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는 형사, 의료인, 법조인이 자주 등장함
- 2006년까지를 보면 아나운서(MBC <이브의 모든 것>), 골프(SBS <라이벌>), 경호원(KBS <보디가드>), 복싱(SBS <매러>), 파티셰(MBC <내이름은 김삼순>), 패션(SBS <패션>), 요리(SBS <온리유>)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듯 다양한 전문직종이 새롭게 소재로 등장하기 시작함
- 하지만 2007년 이전에는 MBC의 <이브의 모든 것>(2000)과 SBS의 <메디컬센터>(2000)를 제외하면 전문직 드라마라는 것이 기존의 전통적인 멜로 드라마의 신선함을 가미하는 차원에 머물렀을 뿐 전문직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묘사가 부족함
- 2007년에 와서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주인공의 삶을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묘사한 드라마가 눈에 띄게 증가함
- 최근의 동향은 의학 드라마와 같이 기존에 자주 등장하는 몇몇 전문직종을 다루는 경우에는 전문 분야를 더욱 세부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특징적임



- 의학 드라마의 경우 새로운 경향은 의학 내에서 전공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되고 실제 환자의 질병, 시술행위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의학 드라마와 차별성을 가짐
- 의학 전문드라마를 표방한 MBC <하얀거탑>은 구체적으로 외과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 수술 장면, 권력 관계 등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본격적인 전문직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음(윤석진, 2007)
- 흉부외과를 다룬 <뉴하트>(MBC, 2007), 외과를 다룬 <외과의사 봉달희>(SBS, 2007), <산부인과>(SBS, 2010)가 이러한 전문직 드라마의 대표작임.
-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의학이나 수사 드라마에 비해 법정 드라마가 최소한데, <신의 저울>(SBS, 2008)과 <파트너>(MBC, 2009)같은 전문직 드라마가 등장한 것은 의미 있는 일임.
- 2007년 이후에는 기존에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직종을 소재로 한 전문직 드라마가 다양하게 등장함
- 공항 보안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을 다룬 <에어시티>(MBC, 2007), 드라마 제작국을 다룬 <그들이 사는 세상>(KBS, 2008), 방송사 보도국에 대한 <서포터이트>(MBC, 2008), 문화재청과 고고학을 다룬 <밤이면 밤마다>(MBC 2008), 클래식 오케스트라를 다룬 <베토벤 바이러스>(MBC, 2008), 한식 요리를 다룬 <식객> (SBS, 2008), 와인을 소재로 한 <떼루아>(SBS, 2008), 자동차 세일즈에 대한 <열혈 장사꾼>(KBS, 2009), 의류업을 다룬 <신데렐라 맨>(MBC 2009), 패션잡지사의 이야기를 다룬 <스타일>(SBS 2009), 파스타 요리를 소재로 한 <파스타>(MBC, 2010) 그리고 2010년 여름에 40%의 시청율을 자랑하는 <제빵왕 김탁구>(KBS, 2010)까지 매우 다양함
- 작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존에는 전문직을 작품의 새로움을 포장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면 최근 2007년과 2008년에 방송된 다수의 드라마는 전문직 종사자의 도전, 모험, 실패, 성공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과 전문직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의 지적 욕구에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전문직 소재별 드라마 구분(2000~2009.08)>

| | KBS1/2 | MBC | SBS |
|-----|------------------------------------|---|--|
| 의학 | | 뉴하트<2007수목> 하얀거탑<2007주말> 종합병원2<2008수목> | 메디컬 센터<2000주말> 외과의사봉달화<2007수목> 카인과 아벨<2009수목> 산부인과<2010 수목> |
| 법정 | 피트너<2009 수목> | 리멤버<2002수목> 변호사들<2005월화> | 신의 저울<2008주말> 대한민국변호사<2008수목> 검사프린세스<2010수목> |
| 수사 | 일단뛰어<2007수목> 국가가 부른다<2010월화> | 달콤한 스파이<2005월화> 히트<2007월화> 마왕<2007월화> 개와 늑대의 시간<2007수목> | |
| 요리 | 신데렐라 언니<2010수목> 재벌형 김탁구<2010수목> | 내이름은김삼순<2005수목> 진짜진짜좋아해<2006주말> 커피프린스1호점<2007월화> 피스타<2010월화> | 문리유<2005주말> 식객<2008월화> 때루아<2008월화> |
| 방송 | 그들이사는세상<2008월화> | 이브의 모든 것<2000수목> 오버더레인보우<2006수목> | 문애어<2008수목> 스포츠라이트<2008수목> |
| 스포츠 | | 트리플<2009수목> 런닝, 구 <2010수목> | 라이벌<2002주말> 때라<2003수목> 드림<2009월화> |
| 패션 | | 신데렐라 맨<2009수목> | 패션 70s<2005월화> 스타일<2009주말> |



<전문직 소재별 드라마 구분(2000~2009.08)>

| | | | |
|----|--------------------------------|---------------------------|-----------------------|
| 기타 | 보디가드<2003주말> (보디가드) | 호텔리어<2001수목> (호텔리어) | 매직<2004 주말> (미술) |
| | 강적들<2008월화> (보디가드) | 에어시티<2007주말> (공항) | 불량가족<2006주말> (대형업) |
| | 열혈장사꾼<2009주말> (키덜러) | 밤이면 밤마다<2008월화> (문화제정) | 편의전쟁<2007수목> (대부업) |
| | 결혼못하는남자<2009월화> > (건축디자이너) | 베토벤바이러스<2008수목> (음악가) | 로비스트<2007수목> (로비) |
| | 개인의취향<2010수목> (가구 및 건축 디자인) | | |

○ 전통적으로 전문직 드라마의 소재로 활용되던 의학, 수사, 법정 직종 외에 다양한 전문직이 새롭게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요리, 방송/연예, 스포츠에 관련된 직업군을 다루는 드라마가 눈에 띄게 늘어남

- 이러한 직업군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인기 직종이 등장한 것을 드라마가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직업군이 동시대 시청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소재로서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한편 기타 전문직 소재를 보면 일정한 트렌드를 보이지는 않고 단발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들이 많은데, 보디가드, 고고학, 대부업, 로비 등과 같은 이러한 소재는 소재의 보편성보다는 이색적 성격에 호소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전략에 따른 경우로 볼 수 있음

3. 서사구조: 멜로와 전문직 사이에서

- 2006년까지 전문직 색채를 띤 드라마의 대다수는 전문직이라는 새로운 소재로 신선함을 가미하였지만 기존의 멜로 중심의 서사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
- 2007년 이전에는 MBC의 <이브의 모든 것>(2000)과 SBS의 <메디컬센터>(2000) 정도가 그나마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나머지 드라마는 거의 멜로 중심의 드라마임
- 2007년 이후부터는 양적으로도 전문직 드라마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무엇보다 멜로가 아닌 직업생활에서 나타나는 사건, 모험, 갈등이 서사를 이끌어가는 드라마가 대거 등장함

<전문직 드라마의 중심 서사구조(직업/멜로)>

| 방송사 | 직업 중심 | 직업+멜로 | 멜로 중심 |
|------|--------|----------------------|------------------|
| 2000 | KBS1/2 | | |
| | MBC | ■ 이브의 모든 것 (2000 수목) | |
| | SBS | ■ 메디컬센터 (2000 주말) | |
| 2001 | KBS1/2 | | |
| | MBC | | ■ 호텔리어 (2001 수목) |
| | SBS | | |
| 2002 | KBS1/2 | | |
| | MBC | ■ 리빙버 (2002 수목) | |
| | SBS | | ■ 라이벌 (2002 주말) |
| 2003 | KBS1/2 | | ■ 보디가드 (2003 주말) |
| | MBC | | ■ 태라 (2003 수목) |
| | SBS | | |
| 2004 | KBS1/2 | | |
| | MBC | | ■ 태작 (2004 주말) |
| | SBS | | |



<전문직 드라마의 중심 서사구조(직업/멜로)>

| 방송사 | 직업 중심 | 직업+멜로 | 멜로 중심 |
|------|--------|---|--|
| 2005 | KBS1/2 | | |
| | MBC | | ■ 변호사들 (2005 월화) ■ 달콤한 스파이 (2005 월화) ■ 내 이름은 김삼순 (2005 수목) |
| | SBS | | ■ 패션 70s (2005 월화) ■ 은리유 (2005 주말) |
| | KBS1/2 | | |
| 2006 | MBC | | ■ 오버더래인보우 (2006 수목) ■ 진짜진짜 좋아해 (2006 주말) ■ 불량가족 (2006 수목) |
| | SBS | | |
| | KBS1/2 | ■ 워킹퀸 (2007 목) | |
| 2007 | MBC | ■ 하인거담 (2007 주말) ■ 에어시티 (2007 주말) ■ 힌트 (2007 월화) | ■ 뉴하트 (2007 수목) ■ 개와 늑대의 시간 (2007 수목) ■ 마왕 (2007 월화) |
| | SBS | ■ 외과의사 봉달희 (2007 수목) ■ 권의 전쟁 (2007 수목) | ■ 로비스트 (2007 수목) |
| | KBS1/2 | ■ 강적들 (2008 월화) | ■ 그들이 사는 세상 (2008 월화) |
| | MBC | ■ 베토벤 바이러스 (2008 수목) ■ 종합병원2 (2008 수목) ■ 스포트라이트 (2008 수목) | ■ 내 여자 (2008 주말) ■ 방이면 방마다 (2008 월화) |
| 2008 | SBS | ■ 식객 (2008 월화) | ■ 신의 지문 (2008 주말) ■ 태무이 (2008 월화) |
| | KBS1/2 | ■ 열혈강사군 (2009 주말) | ■ 결혼 못하는 남자 (2009 월화) ■ 신대철라 엔 (2009 수목) ■ 트리플 (2009 수목) |
| | MBC | | ■ 카인과 아벨 (2009 수목) |
| | SBS | ■ 스타일 (2009 주말) | |
| 2009 | KBS1/2 | | ■ 신대철라 언니 (2010 수목) ■ 국가가 부른다 (2010 월화) |
| | MBC | ■ 재방송 김학구 (2010 수목) | ■ 개인의 취향 (2010 수목) |
| | SBS | ■ 스타일 (2009 주말) | ■ 헌녕, 구 (2010 수목) |
| 2010 | KBS1/2 | | ■ 검사 프린세스 (2010 수목) |
| | MBC | ■ 파스타 (2010 월화) | |
| | SBS | ■ 신부인교 (2010 수목) | |



- 2007년에는 그 이전 시기와는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며 직업 중심의 서사구조를 가진 드라마가 대거 등장했다면, 2008년부터는 직업과 멜로를 적절하게 혼합한 드라마가 확연하게 늘어남
- 이러한 경향은 2007년 전문직 드라마를 가장 많이 방송한 MBC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남
- 그 이유는 2007년 <하얀거탑>, <뉴하트>, <에어시티>, <히트>와 같은 본격적인 전문직 드라마들이 주목을 받았고 일부는 매니아층까지 형성했으나 시청률 성적은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으로 보임
- <에어시티>의 평균시청률은 12.1%였고 <히트>는 타 방송사 드라마보다는 두각을 나타냈으나 평균 15.8%(AGB닐슨미디어리서치)을 기록했으며, 매니아를 탄생시키고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하얀거탑> 역시 평균시청률이 10% 중반에 머물렀음
- 직업 중심의 본격적인 전문직 드라마의 성적이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멜로로부터 홀로서는 아직 한계가 있음
- 멜로와 전문직을 적절하게 배합한 <뉴하트>의 평균시청률이 20%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전문직(바리스타) 색채를 가미했으나 멜로 중심의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는 <커피프린스 1호점> 역시 평균 20%가 넘는 시청률 뿐만 아니라 장안의 화제가 됨
- 2009년과 2010에는 직업 중심의 전문직 드라마는 확연하게 줄어든 반면 멜로 중심의 전문직 드라마, 혹은 전문직 특성을 가미한 멜로 드라마가 급증함
- 특히 전문직 드라마의 편성에 열을 올리던 MBC가 이 시기에는 전문직과 멜로를 혼합한 <파스타> 외에는 어떠한 전문직 드라마도 방송하지 않았음



4. '전문직 슈퍼맨' 캐릭터의 등장

- 전문직 드라마 장르의 등장을 알리는 또 다른 신호는 바로 '전문직 슈퍼맨(superman)' 캐릭터임
- 여기서 슈퍼맨은 영화 <슈퍼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코(Eco, 1978)가 '초인'의 의미로 개념화한 슈퍼(super)+맨(man)을 말함
- 이 슈퍼맨은 대중을 위한 모델로서 제작된 '대중의 슈퍼맨'이자 시리즈화³⁾라는 현대 대중매체의 상업화 방식에 적합한 모델을 의미함
- 드라마의 슈퍼맨은 그림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눈을 뜬 채 꿈꾸기 위해 제공되는 슈퍼맨"(Eco, 1978, 11)임
- 이 이론을 따르자면 TV 드라마는 결코 혁명적일 수 없는데 드라마는 관매 가능성의 이유로 대중에게 위안과 즐거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
- 드라마의 이야기는 사건을 통해 위기나 모순의 표출로 전개되는데 대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힘이나 권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자, 즉 권력을 소유한 인물을 필요로 함
- 특별한 재능과 배경을 가진 이 인물은 일반적으로 헤게모니 계급에 속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헤게모니 계급은 모순들의 치유에 관심이 없을 것이므로 위기와 모순의 해결자는 좀 더 방대하고 조화로운 정의를 추구하는 심판자의 무리에 속함
- 하지만 사회는 이러한 해결자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해결자는 특별한 능력이나 카리스마를 가져야 하는데 여기서 바로 슈퍼맨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 에코의 주장(Eco, 1978, 130).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드라마의 슈퍼맨은 치유와 위안을 갈구하는 대중의

3) 여기서는 상업적 목적 하에 연속적으로 재생산된다는 넓은 의미에서 사용됨.



- 육구와 대중매체의 상업화 방식의 결과물임
- 일반적으로 드라마에는 다양한 유형의 슈퍼맨이 등장하는데 전문직 드라마의 경우도 분석해 보면 고유한 슈퍼맨 캐릭터를 발견할 수 있음
 - 전문직 드라마에서는 비록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처럼 초능력을 지니고 있고 정의를 수호하고 악과 싸우는 그러한 인물은 아님
 - ‘수퍼히어로’에 비하면 오히려 평범한 사람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드라마의 주요 캐릭터는 슈퍼맨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님
 - 첫째, 전문직 드라마의 주인공은 자기가 살고있는 전문직업의 세계에서 좌절과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오투기처럼 항상 일어서는 노력형 인물
 - 주인공의 성공을 다루는 전문직 드라마의 경우 주인공이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까지 수많은 시련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어가는데 주인공은 매번 그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룸
 - 둘째, 전문직 드라마의 주인공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특별한 재능을 지님
 - 노력만 강조했다면 시청자들은 호응하지 못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도 현실에서 나름 노력하며 살지만 성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전문직 드라마는 캐릭터에게 특별한 재능을 부여함
 - <베토벤 바이러스>의 강건우는 제대로 음악교육을 받지 못해 악보를 읽을 줄 모르지만 어떤 어려운 곡이든 한번만 들으면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재현해 낼 수 있으며, <재봉왕 김탁구>의 김탁구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선천적인 후각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재능은 항상 그 분야의 대가에 의해 발견되고 인정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특별한 재능이 주인공이 한 전문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게 만드는 서사구조에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시청자의 욕구에 응답함



<전문직 슈퍼맨(우먼) 캐릭터 사례>

| 캐릭터 | 사례 |
|------|--|
| 슈퍼맨 | <베토벤 바이러스> 강마에, <파스타> 최현욱, <스타일> 서우진, <개인의 취향> 전진호, <밤이면 밤마다> 김병상, <하얀거탑> 정준혁, <하얀거탑> 노민국, <소프트라이트> 오대석, <그들이 사는 세상> 손규호, <파트너> 이영우, <떼루아> 강대민 |
| 슈퍼우먼 | <스타일> 박기자, <뉴하트> 남혜석, <검사 프린세스> 마해리, <아가씨를 부탁해> 강혜나, <에어시티> 한도경, <신데렐라 언니> 송은조, <외과의사 봉달희> 조아라, <소프트라이트> 서우진, <소프트라이트> 채명은, <열혈장사꾼> 재희, <파트너> 한정원, |

- 셋째, 치열한 경쟁의 장이 펼쳐지는 전문직업의 세계에서 전문직 드라마의 주인공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함
 - 남을 이겨야 자신이 사는 그곳에서 공정한 경쟁보다는 수많은 편법과 음모술 수가 존재하지만 주인공은 모함에 빠지고 음모에 시달려도 경도를 포기하지 않고 항상 노력과 실력으로 성공을 쟁취함
 - 주인공은 노력과 천재성을 갖추고 있고 대가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편법이나 음모가 필요하지 않는데, 이것은 타 장르 드라마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주인공 캐릭터의 특징이긴 하지만 전문직 드라마에서 전문직에서의 성공 스토리라는 맥락에서 활용됨
- 넷째, 전문직 드라마에서는 주연 뿐만 아니라 조연도 다양하면서 개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이 현상은 2000년대 후반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기존에는 주인공의 캐릭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다면 오늘날은 개성이 강한 여러 조연을 활용하면서 드라마에 다양한 재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직 드라마도 이러한 트렌트를 능동적으로 따라가고 있음



- 다섯째, 기존의 성공한 캐릭터의 요소들이 전문직 드라마의 주요 등장인물의 캐릭터 구성에 반복적으로 재활용됨
- 이것 역시 전문직 드라마만의 고유한 특징은 아니며,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성공 모델을 모방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드라마를 넘어서 문화산업 전반에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된 전문직 드라마를 보면 등장인물의 특정 성격에 일정한 전형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내의 유혹>이 성공을 거둔 이후 악녀 캐릭터가 매우 성행한 것과 비슷한 경우임

<전문직 드라마의 캐릭터 반복성 사례>

| 드라마 | 등장인물 | 특징 |
|------------|--------------------|--|
| <외과의사 봉달희> | 봉달희(이요원)→ 이은성(지성) | 상류 지방의대 출신, 주변의사들로부터 무시당함, 끈기와 배짱과 노력으로 문제 해결,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
| | 안중근(이범수)→ 최강국(조재현) | 뛰어난 실력을 소유한 천재 의사, 차가운 성격, 주인공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음 |
| -><뉴하트> | 박재범(김인권)→ 배대로(박철민) | 분위기 메이커, 차갑고 긴박한 병원 분위기에 활력 제공 |
| <베트벤 바이러스> | 강마에(김명민)→ 최현욱(이선균) | 최고의 실력자, 막말과 직언, 현실과의 타협 거부, 자신의 원칙 고수, 겉은 냉정하나 내면의 따뜻함 지님 |
| | -><파스타> | 두루미(이지아)→ 서유경(공효진) |



<전문직 드라마에 나타난 남녀 주인공 캐릭터의 전형성 사례>

| 캐릭터 전형성 | 사례 |
|--------------|---|
| 권위적 (가칠/버럭남) | <베트벤 바이러스> 강마에, <파스타> 최현욱, <밤이면 밤마다> 김병상, <하얀거탑> 정준혁, <그들이 사는 세상> 손규호, <파트너> 이영우, <때루아> 강태민, <재벌왕 김탁구> 구마준 |
| 순종적 (앤디형) | <내 이름은 김삼순> 김삼순, <외과의사 봉달희> 봉달희, <파스타> 서유경, <개인의 취향> 박개민, <스타일> 이서정, <열혈장사관> 다해, <드림> 박소연, <때루아> 이우주, <파트너> 광은호, <라이벌> 다민 |
| 악녀 | <이브의 모든 것> 영미, <스타일> 박기자, <온에어> 오승아, <드림> 장수진, <재벌왕 김탁구> 서인숙, <라이벌> 채연 |

- 전문직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처럼 기존 드라마에서 나타난 캐릭터의 몇 가지 특성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현대 대중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수퍼맨 캐릭터로 거듭났음
- 이것은 분업화와 전문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한 면을 이 전문직 드라마가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비록 하늘을 날고 차를 번쩍 들어 날리는 '수퍼맨'은 아니지만 전문직 드라마의 '수퍼맨'도 법인이 소유하지 못한 천체적 재능 그리고 투지와 근면성 그리고 도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누구나 동경하는 현대사회의 '수퍼맨'임
- 전문직 수퍼맨 캐릭터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이중성'임
- 평소 영화 <수퍼맨>의 클라크는 신문사에서 어리숙한 기자이고, 영화 <스파이더맨>의 피터는 가난하고 평범한 학생이며, 드라마 <베트벤 바이러스>의 강건우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순경이고, <파스타>의 서유경도 중국집 딸이고 파스타 요리의 초보임
- 그들은 모두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고민하고 슬퍼하며 웃고 즐거워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한편으로는 모두 자신의 특별한 재능에 대한 비밀을



알든 모르든 감추고 있으며 때로는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으로 살아감

- 이러한 등장인물의 이중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모험담과 반전 그리고 긴장감을 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임(Eco, 1964, 320)
-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장치가 등장인물과 시청자 간의 거리를 좁혀 동일시를 가능하게 함
- 더욱 중요한 것은 시청자들이 동일시를 통해 평범한 자신들도 언젠가는 '수퍼맨'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 주며, 현재는 그들의 수퍼맨을 통한 대리만족으로 위안을 얻음

VI. 결론과 연구의 한계

- 2007년부터 그 전 시기와 명확히 구분될 정도로 국내 방송에서 전문직 드라마가 질적, 양적으로 뚜렷하게 활성화됨
- 사극과 멜로 드라마 중심의 국내 드라마 시장에 신선함을 제공하고, 사회문화적 환경과 시청자의 시청경험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드라마 장르의 시도라는 점에서 전문직 드라마의 출현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임
- 이 시기부터 의사, 형사, 변호인 등 기존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던 전문직에서 제빵, 보험, 요리, 와인, 클래식, 등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전문직 영역이 매우 다양해짐
- 의학과 같이 자주 활용되던 전문직의 경우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매우 세부화된 분야의 전문직으로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음
- 전문직 소재는 단순히 소재의 피상적인 차용에 그치지 않고 전문직업의 삶과



성공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의 창작에 활용되면서 기존의 멜로 중심에서 직업 중심의 서사구조를 가진 드라마의 창작을 유인함

- 전문직 드라마는 소재가 되는 전문직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사실적 묘사를 보여주는 경향이 특징적인데 이것을 통해 해당 직업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드라마의 현실효과를 극대화함
- 특정 전문직 드라마는 매니아 시청층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30% 이상의 고시 청첩을 달성하지 못하여 폭넓은 시청층을 아우르지 못하는 특징이 있음
- 2009년부터 직업 중심의 서사구조를 가진 전문직 드라마가 급격하게 줄고 있으며 다시 멜로물 혹은 기존의 성공한 콘텐츠의 요소들과 타협을 시도함에 따라 국내에 전문직 드라마의 본격적인 장르화와 성장이 매우 불투명함
- 전문직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는 특정 직업에 대해 긴 사전조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화된 전문직 드라마 작가의 배출이 쉽지 않고 시청률 성과도 크지 않아 향후 국내 전문직 드라마에 대한 투자가 불투명함
- 이 연구는 국내 전문직 드라마의 전반적 지형을 파악하다 보니 각 주요 전문직 드라마의 세부적이고 개별적 특성이 간과되는 한계가 있음
- 향후 해외의 전문직 드라마와 비교 분석할 경우 매우 유의미한 연구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참고문헌>

- MBC 시청자연구소(2006). 『드라마 성공 모델 분석-최근 5년간의 방송 3사 드라마를 중심으로』. 서울: MBC.
- 권호영·박용진·윤석진·김숙(2009). 『드라마 성공 요인 분석』. 서울: 한국콘텐츠진흥원.
- 김안나(2007). 『문화의 탈 지역화 그리고 혼성화 시대의 대중문화물 리메이크 현상에 대한 사례 분석- <하얀거탑>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주진(2009). 『29인의 드라마 작가를 말한다』. 뫼: 서울
- 윤석진(2007.12.14). 제대로 만든 '전문직드라마'를 기다린다. 미디어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0>.
- 조민준(2008). 트렌디 멜로에 대한 반작용 시청률 확보가 현실적 제약-전문직 드라마의 성공과 딜레마. 『신문과 방송』, 11월호, 116~119.
- 주창윤(2004). 역사드라마의 역사서술방식과 장르형성. 한국언론학보, 48-1, 166-368.
- Eco U.(1964). Apocalittici e integrati, 윤종태(2009) 역, 마스크와 미학, 서울:열린책들.
- Eco U.(1978). Il superuomo di massa, 김운찬(1994) 역,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 서울:열린책들.